



- 사순 제5주일 - 2019년 4월 7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793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jb.ucatholic.or.kr

6지구 - 식사동 성당



설립 2010년 9월 14일 전화 사무실 031-965-1784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153

제1독서 이사 43,16-21

화답송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3참조)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 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필리 3,8-14

복음 환호송 요엘 2,12-13 참조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복음 요한 8,1-11

영성체송 요한 8,10-11 참조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사랑은 닳아 가는 것이다.



안종찬 나보르 신부
인창동 부주임

우리는 머지않아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신앙인의 준비는 사순시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은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다짐하여 자신을 정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더욱 크게 내릴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하나씩 떠나갔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마도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느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짓게 됩니다. 반대로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일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간음한 한 여인을 몰아세우고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한 여인이 큼직한 돌을 집어 들고 그 간음한 여자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살짝 당황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막아서며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 유머러스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해소에 앉아 있으면 가끔 이런 성모님과 같이 자신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신자를 만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둠에서 빛의 삶으로 변화되는 회심의 길은 죄를 인식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사순시기의 마지막 지금이라도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닳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생각과 행동 방식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



심판-라마크리슈나 우화에서



한 사원에 고명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매춘부의 집이 있었다. 사원은 성스러웠으나 매춘부의 집에는 건달들이 심 없이 들락거렸다. 어느 날 수도사는 매춘부를 불러다 놓고 호되게 꾸짖었다. “그대는 밤낮으로 죄를 짓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가난한 매춘부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다.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무식하고 재주 없는 이 여인은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다. 사내들의 출입은 그치지 않았다. 수도사는 매춘부의 집으로 사내들이 들어갈 때마다 뜰에 돌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날이 감에 따라 돌무더기가 커졌다. 하루는 수도사가 매춘부한테 돌무더기를 가리키며 질책했다. “여인아, 이 돌무더기가 보이느냐? 이 돌 하나 하나는 내가 상대한 건달들의 숫자이다. 천벌을 받을지고!” 매춘부는 두려움에 떨며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의 찬방에 꿇어 엎드려 울면서 통회했다.

“신이여, 어서 이 비참한 생활에서 이 몸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이 골목에 찾아왔다. 수도사를 데려갔고 매춘부를 데려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매춘부는 천당으로 인도되고 수도사는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가. 매춘부가 천당으로 가는 것을 본 수도사의 눈에 불이 일었다.

“어떻게 신의 심판이 이런단 말인가. 나는 일생 동안 금욕과 절제 속에서 신을 경배하며 살았다. 그런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일생 동안 간음죄만 지은 저 여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다니 말이 되는가?”

신의 사자가 대답했다. “수도사여, 신의 심판은 공명정대한 것이다. 너는 평생 수도사라는 자만심과 명예만을 지키며 살았다. 신의 이름으로 죄만 가릴 줄 알았지 사랑은 베풀 줄 몰랐다. 그러나 보라! 저 여인은 몸으로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정한 기도를 했다. 가난한 이웃과 끼니를 나눠먹고 의로운 자의 편을 들기도 했으니 얼마나 가률향가.”

신의 사자는 수도사에게 지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여 주었다. 수도사의 장례차는 온통 꽃으로 꾸며져 있었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매춘부의 시신은 흰 누더기로 싸여 있었다. 꽃 한 송이 없었고 찾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

신의 사자는 말했다. “잘 알아 두어라. 지상의 대접이 하늘의 대접과 다르다는 것을. 신은 인간의 순수를 본다. 육체의 매춘보다 더러운 것은 종교의 매춘, 지식의 매춘, 권력의 매춘이다.”



그림 _ 구민정 엘리사벳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 5.9)




2019

이주민 축제

날 **짜** : 2019년 4월 28일(일)
시 **간** : 10:00-17:00
장 **소**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운동장

시간	프로그램
10:00	축제시작(부스 11:00-15:30)
11:30-14:00	춤&장기자랑
14:00-15:00	한국전통놀이
16:00-17:00	국제미사

주 최 :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후 원 :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

이사야 2

—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후반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전 8세기-7세기 초의 유다왕국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원전 8세기 유다 왕국은, 우찌야(열왕기의 아자르야) 임금의 시대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번영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찌야의 죽음(742년) 이후, 유다왕국은 점차 고대 근동 지역을 흐드는 격랑 속으로 들어섭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새로운 임금 티글랏 필에세르(745-727년)가 파괴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즈 임금 시대(736-715)에 아시리아에 저항하고자 하는 북 이스라엘 임금과 시리아 임금은 동맹을 맺고 유다 임금에게도 동참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하즈가 이를 거부하자, 반아시리아 동맹국들은 유다 왕국을 먼저 공격해 옵니다(시리아-에프라임 전쟁, 736-734). 유다 임금은 아시리아에 도움을 청합니다. 티글랏 필에세르의 개입으로 유다 왕국은 살아 남지만, 그 결과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아시리아에 계속 저항하던 북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멸망합니다(722년).

히즈키야 임금(715-686)은 재위 초기 강력한 종교

개혁(2열왕 18,4; 2역대 29-31장)을 실행하며 유다 왕국의 힘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 임금 사르곤 2세가 전투 중에 죽고 산헤립이 제위를 물려받자, 제국의 변두리에 속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거부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뒤에는 새로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에티오피아-이집트 왕국이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이 팔레스타인의 소국들에 흘러들었습니다. 히즈키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산헤립은 유다 왕국을 침공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위기에 처한 임금은 이사야에게 문의하고 직접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바칩니다. 갑자기 덮친 전염병에 아시리아 군대는 물러가고 산헤립은 왕자들의 반란으로 죽음을 맞습니다. (2열왕 18,13-19,37; 2역대 32,1-19; 이사 36,1-37,38)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이사 6,1)에 부르심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사야는 요탐의 시대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 아하즈 임금과 히즈키야 임금의 시대에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곧 그가 활동한 시기가 전쟁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전쟁의 현실과 참상을 묘사하는 말들을 쉽게 만납니다(이사 5,26-30; 8,5-8; 9,4; 13,15-16.18; 15,2-3.6-7.9; 16,10).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시위는 모두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차돌과 같고 병거의 바퀴들은 폭풍과 같다.”(5,28)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텅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싸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9,4) “발각되는 자마다 찢려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의 어린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동명이쳐지고 그들의 집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13,15-16)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루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15,3) “과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 학에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 버렸다.”(16,10)

임금과 대신들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에서 닥쳐오는 강력한 세력에 다른 강력한 세력을 끌어들이 막는 것이

었습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를 불러들였고, 히즈키야는 이집트의 도움을 믿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라는 살아남았지만 전쟁의 피해와 막강한 조공은 더 큰 부담으로 돌아왔고 피해를 불러들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사야는 다른 힘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힘에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7,9) 주님께 대한 믿음,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구원자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이 나라를 지켜주는 힘이며 굳건하게 하는 바탕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날개 아래’, 그들의 ‘그늘’로 피하려는 정치적인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 당신 것으로 너를 덮으시어 네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시편 91,1,4)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네 오른쪽에 계시다.”(시편 121,5)

‘강둑을 넘어 목까지 차올라오는 세찬 강물처럼’(이사 8,7-8) 짓쳐들어오는 제국의 힘 앞에 두려워 떠



는 이들의 면전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만을 거룩히 모셔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분이시다.”(8,13)

이사야의 목소리는 때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누구의 목소리보다 우선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

었기 때문이며, 세상의 힘들을 견주어 보기 전에 하느님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건에 대해 해석할 때 어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들 그런다고 주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더 목소리 큰 쪽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는 오만일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며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도 종교를 가졌다.’고 말하는 자기 위안이며 걸치레일 뿐입니다. ☸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선교사목국 성서사목부 담당

고마워요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 | 대신학교

지난 주일이 전승규 신부님의 6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묘소에 가보지는 못하고 미사 중에 마음 속으로 기억하였습니다. 고인과의 시간들을 추억하고 주변에 있는 고인을 아는 분들과 고인에 대해 회상하고 있노라니 자연스럽게 “고마워요”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여전하지만, 고인이 하느님 안에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가 남아있는 이들과 신비로운 방식으로 통공 중에 있음을 신앙으로 확신하니, 이제는 슬픔과 안타까움은 어느새 은은한 향취가 어린 고마움이 되어있습니다. 서로가 벗이 되어 주었던 시간의 고마움을 깨닫습니다. 그 고마움을 음미하면서, 이제 고인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더 근본적이고 존재적인 차원에서 감사하는 행위를 배워갑니다.

존재를 체험하게 하는 감사는 아마도 신적인 신비와 맞닿아 있다 할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단상이 길잡이가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유 Gedanken”의 뿌리는 다름아니라 “감사 danken”라고. 진리에 다가간다는 것은 분별하고 나열할 수 있는 ‘지식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방식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행위 자체가 가장 깊은 사유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의 말은 일상과 자연 속에 다채롭게 깃들여 있음을 얼마 전에 타계한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명인 메리 올리버가 시 ‘아침산책’에서 아름답게 표현했지요.

“감사를 뜻하는 말은 많다. / 그저 속삭일 수밖에 없는 말들. / 아니면 노래할 수밖에 없는 말들. / 딱새는 울음으로 감사를 전한다. / 뱀은 뱅글뱅글 돌고 / 비버는 연못 위에서 / 꼬리를 친다. / 솔숲의 사슴은 발을 구른다. / 황금 방울새는 눈부시게 빛나며 날아오른다. / 사

람은, 가끔, 말려의 곡을 흥얼거린다. / 아니면 떡갈나무 고목을 끌어안는다. / 아니면 예쁜 연필과 노트를 꺼내 / 감동의 말들, 키스의 말들을 적는다.” (메리 올리버 <완벽한 날들> (민승남 옮김, 마음산책, 2013)

사순절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크고 작은 행실들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존재가 하느님과 공명하고,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조금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신비롭게도 가장 절실하게 우리 존재를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그 분께 속해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랑하는 이에게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과 벗과 이웃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자연과 예술에서 뭉클한 감동과 감사의 감정을 느끼며,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관통하는 존재로서 드러납니다. 그러니 세속의 정념을 담은 사랑노래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존재를 신적 신비 속으로 한발 이끌어 주는 초대일 수 있겠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락 그룹으로 꼽히는 레드 제플린의 아름다운 노래인 “감사해요 Thank you”를 들으며 세상 안에서 고마워할 줄 아는 이만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



레드 제플린(Led Zeppelin)
'감사해요 Thank you'

한 걸음씩! 그분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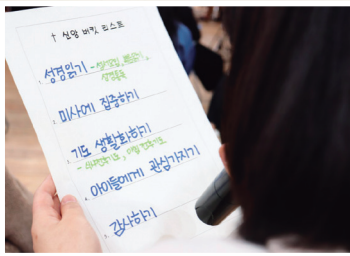
초봄을 맞아 3/15~16, 교구의 어린이부·청소년부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교감단·회장단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신앙'으로, 신앙인이자 신앙공동체를 이끌어갈 대표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교구의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어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어린이부 교감단 & 회장단



청소년부 교감단 & 회장단



삐삐쌤의 중고만화 김준희

평평해져라! 1





4월	7(주일)	15시	견진성사 - 신곡1동 성당
	9(화)	20시	사목방문 -청학 성당
	10(수)	16:30	군중사제 파견미사 - 교구청 경당
	12(금)	15시	지구장회의 - 교구청 회의실

교구 소식

교구청 혼인교리

일시: 4/11(목) 19:30~22:30 /문의: 가정사목부 031-850-1448
 장소: 교구청 지하 대회의실 /회비: 2만 원

3,4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4/11(목) 10시 장소: 동두천 성당

한국 천주교의 뿌리 : 중국 만주 성지순례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 밑일이 되신 조선 초대 교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님과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홈페이지 참조
 대상: 교구민(선착순 30명) /일시: 8/21(수)~27(화) 6박 7일
 장소: 서만자, 마가자, 소팔가자, 김대건 기념관, 백두산 등
 비용: 옵션포함 약 195만 원 /문의: 031-850-1498

군중후원회 4월 월례미사 안내

일시: 4/10(수) 10시 /대상: 군중후원회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
 장소: 구리성당(구리시 안골로64번길 42)
 미사집전: 유충현 시메온 신부(을지성당 주임)

주교좌 의정부성당 사순특강 <신앙의 기쁨과 위로>

일시: 4/14(주일) 교중미사(10:50) 직후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3층)
 강사: 송봉모 신부(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사순절을 위한 복콘서트 '우리는 봄을 믿어야 해요'

최대환 신부의 <당신이 내게 말하러 했던 것들>
 일시: 4/11(목) 19:30 장소: 정발산 성당

미사 · 피정

3·4지구 성령새신봉사회 월피정

일시: 4/8(월) 10시~14:30(미사포함)
 강사: 최성균 요한보스코 신부(성모노인센터)
 장소: 주교좌성당 대성전/문의:010-3790-0496

교구 성령새신 봉사회 철야기도회(미사와 함께)

일시: 매주(금) 21:30~02시 마두동 성당(4/12)
 주제: 찬양과 치유기도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총무부 010-8729-0025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4/13(토) 10시 후곡 성당
 4/27(토) 9:50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2019 의정부교구 체나콜로 대피정 안내

주제/강사: 지존하신 성체께 교회와 자녀들을 봉헌하시는 티 없으신 성모성심 /이정윤 신부, 김강정 신부 /문의: 010-9272-4660
 일시/장소: 4/27(토) 09시~17시 /후곡 성당
 파견미사: 이기현 주교와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회비: 5천 원(김밥, 물제공)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5/25~26, 6/15~16
 3박4일: 4/25~28, 5/3~6
 8박9일: 5/9~17, 6/24~7/2
 40일: 6/17~7/26, 9/16~10/25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익집
 신청: 010-4906-5722, 031)953-6932

파티마 성모발현 기념 피정(031-952-6324)

일시: 매일 13일 10시~14시 미사(점심 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문산읍 마정로100)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피정

일시: 매주(화)10시~14시 미사(점심제공)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031-952-6324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효소단식피정: 5/9(목)~12(일) /28만 원
 효소단식피정: 6/6(목)~9(일) /28만 원
 문의:010-3340-0201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5월피정

월피정: 5/11(토), 6/1(토) 오전10:30~16:20
 1일성지순례: 4/24(수) 풍수원성당, 금대공소, 5/22(수)작은재줄무늬, 산막골성지
 시메온과한나(65세이상무료)피정: 5/14(화)~15(수)
 문의: 02-990-1004

제주명행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아래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예약가능)
 기간: 4/12~14, 4/28~30, 5/4~7(추차도), 5/15~17(제주성모의밤), 5/19~22(추차도), 5/31~6/2
 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예수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참 행복 (마태5,3-12) /안세진 신부
 일시/장소: 4/12(금) 10시~15:1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예수회 후원회) /무료, 미사봉헌

예수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참 행복 (마태5,3-12) /안세진 신부
 일시: 4/15(월) 13:30~16: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대상: 개인, 가족, 분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일시: 4/22~24, 5/2~5, 5/8~10, 5/14~17, 5/19~21, 5/23~26

서울 삼성산2박3일 무료 치유 대피정

강사: 황인수신부 외 전국 유명 강사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일시: 4/12(금) 18시~4/14(일) 15시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문의: 010-3353-4123

성지주일 피정

날짜: 4/13(19시)~4/14(13시)
 대상: 만34세 미만 미혼여성
 장소: 스승예수제자수녀회 미아리본원
 연락처: 010-9816-0072
 회비: 1만 원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피정

일시: 5/17(금)16시~5/19(일)
 장소: 인천 가정동 기도의집
 신청: 네이버(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피정)
 문의: 010-9240-4627 /25만 원

송추성당 농장관리인(8천평) 부모모집

서류접수: 4/14까지 사무실 접수
 면접: 서류심사후 추후 개별공지
 기타: 숙소제공, 전기기술자 우대
 문의: 송추 성당 031-855-1225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봉사자
 장소: 의정부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문의: 031-820-7003

'제5회 민족화해분과위원 연수' 안내

대상: 본당 민족화해분과장 및 위원
 일시: 5/25(토) 10시~18시
 접수: ~5/15(수)까지, 선착순 100명
 장소: 민족화해센터(파주시 탄현면 성동로 111)
 연수비: 1만 원(1인) (* 5/17까지 입금)
 문의: 031-941-6235~6

제22차 웃음과 감성을 찾는 힐링 코칭

일시: 4/25~27(2박3일)
 장소: 소사 성분도 은혜의 집(선착순 30명)
 교육비: 35만 원(자격증 별도/신한 110-253-901965)
 문의: 010-6778-8896/ 조현옥 체치리아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일시: 5/15(수)~16(목) 08:30~17:30
 접수: 02-2030-4296 (4/30까지 전화접수 후 입
 금자에 한하여 등록됨) /등록비: 5만 원
 주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완
 화의료센터 /장소: G층 대강당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사회복지법인 바다의 별)
 문의: 033-458-9422(문피노인요양원)

2019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

일시: 4/29(월)~30(화)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분
 문의: 010-8985-9971, 등록비: 4만 원
 주관: 성 바오로 가정호스피스센터(남양주시 불암산로99)

은평성모병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령: 20~65세 이하로써 심신이 건강한 남, 녀
 봉사주기: 주1회 이상
 안내봉사 (봉사 요일 선택 가능 :월~금)
 호스피스 (봉사 요일 선택 가능 :월~주일)
 봉사시간: 안내봉사-3시간(오전,오후 선택 가능)
 호스피스-4시간 (호스피스교육 이수자)
 문의: 02-2030-3456(서경임수녀 /안내봉사자)
 02-2030-4296(호스피스 센터)

타우영성심리상담소(문의: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우울,분노,스트레스,관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박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4/8(월)부터 10주 /문의:02-338-3793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아카데미

시스미나 성가발성교실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
 신상곡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월요일 11시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콜롬반 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4/14(일) 오후 2~5시
 대상: 만23세~만38세, 남, 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안내 · 기타

기적의 메달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일시: 4/13(토) 14시~17시
 장소: 명동 교구청 별관
 대상: 세례와 견진을 받은 관심있는 미혼여성
 문의: 010-6625-0927(성 빈첸시오 사랑의 딸회)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6 멕시코 쿠바 페루 12일 590만 원
 5/13 동유럽 12일 379만 원
 5/21 이스라엘 일주 9일 360만 원
 5/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 원
 문의 : 02-2281-9070 / www.cttour.org

가톨릭여행사 02-319-2533

5/13 러시아 발트 3개국 10일 395만 원
 5/14 독일 동유럽 4개국 12일 365만 원
 5/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 원

감사와 영혼의 치유 제주힐링 성지순례 3일

일시: 5/28, 6/4, 7/12, 8/9, 9/17
 장소: 제주성지6곳 (성지해설)
 문의: 064-805-9689
 해외성지순례: 8/20일 출발 코카서스3국 11일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5/1 6/4 이스라엘, 요르단10일 289만 원
 4/22 5/24 성모님발현 13일 389만 원
 5/12 나가사키 949천 원, 4/7 당당 129만 원

일본성지순례 (가고시마,나가사키,아키타)

출발: 매월 1회, 4박5일 / 64만 원
 주관: 가고시마교구 /지도: 송진욱 신부
 문의: 010-3645-9028

미국 가톨릭사립학교 여름국제캠프 모집

기간: 7/13(토)~8/5(월) 홈페이지 참조
 대상: 초3~중2 (선착순 남 15, 여 10명)
 문의: 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제 5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7/21~8/10(3주)
 대·일반: 6/30~8/11(6주)
 공동: 세계 연수생들과 연수 + 다양한 경험
 설명회: 4/14(일) 2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는가족,효도,단체
 관광및성지안내차량,호텔,팬션,골프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H:010-4566-6476

한국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5/14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14일 390만 원
 6/3 발칸반도 및 메추고리에 11일 370만 원
 7/1 아일랜드, 스코트랜드, 영국 12일 4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33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출발: 6/22(토), 7/20(토)
 설명회: 4/27(토) 14시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국제교류팀, 070.4365.7297

54차 이스라엘, 이태리 순례

일시 9/19~10/1 (12박13일), 470만 원
 문의: 010-9454-5648, www.terrasanta.kr
 작은행제회 이스라엘 성지 한국 대표부

2019 여름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주최: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장소: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초4~중2 (모집인원 : 50명)
 기간: 7/20~8/18(4주), 비용: 320만 원
 전화: 031-207-4982, 010-4442-4982
 블로그: http://blog.naver.com/cfcengcamp

성 소 모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매월 셋째 주일, 12시~5시	신길동 본원	010-9749-8127
예수회	4/13(토) 15:30	예수회센터 이나시오카페	010-3324-0731
살레시오회	4/27(토)~28(일)	서울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	010-5159-3949



성체성사(5) :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루카 19, 5)

왕태연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현존(現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곧 나와 함께 머무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성사입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것이 그 행위로만 놓고 본다면, 내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이 위대하고도 거룩한 순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로 사도는 양심 성찰을 권고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1코린 11,27~28)’ 그러므로 중한 죄를 지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85항)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이”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구원의 초대’는 당연히 억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이들이’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느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며,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게 해줍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과 화해하려는 노력 없이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므로, 영성체를 위한 합당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고해성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로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정한 공복재(空腹齋)를 지켜야 합니다. 몸가짐(행동, 복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님이 되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과 기쁨을 나타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387항)

이러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은 우리가 받아 모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비가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며,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지는 미사(Missa)는 “영성체”라는 매우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을 향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고 이끌어 줍니다.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하여 미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사 전부터 시작하여 미사 후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한 합당한 준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오리다.” ☸